

홍수 이후 사람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졌고, 그 후손들을 통해 인종도 생기고, 나라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다시 자기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에 빠져 잘 아는 바벨탑 시대가 열린다. 이 바벨탑 시대에 역사적으로는 인류 최고의 제국이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만들어진다.

**바벨탑 시대가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만드는 최악의 문화이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보겠다는 것이다. 그 욕망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다(사단 숭배). 바벨탑이 지역마다 세워진 우상 신전들이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한없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찬 세상의 문화, 거기서 나오는 타락과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들(강대국), 그러면서 시작된 우상 숭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마4:8-9).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후손과 가문을 통해 세계를 살린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어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신 것이다(응답 25).

가병 317명을 세워 자기 조카 롯을 구할 만큼 힘을 주셨고(창14:14), 대체사장의 축복을 받아 큰 십일조를 드릴 만큼의 경제 축복도 받고(창14:20), 훗날 가나안의 모든 족속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하셨다(창24:11).

그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다(갈3:14, 29). 이 응답 25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 1. 이 아브라함이 누린 응답 25의 시작이 뭐냐?

1)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다(롬4:2). 이 속에 우리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고(엡1:3-5)

②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다(막3:13)

③ 기준과 이유는 가장 약한 자를 택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고전1:29), 그 지극히 큰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오는 모든 세대에 전할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다(엡2:7).

특히 강대국의 램넛트들이 중요하다. 가장 약한 자들을 강대국에 보내어 거기서 증인과 씨앗으로 세운 것이다.

2)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모든 응답과 축복의 증인들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지극히 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간증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반대로 살고 있다(    착각 세가지).

①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 것이 줄로 착각하고 산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것을 위해서는 무슨 것이라도 하고 산다(롬1:24-25)

②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롬1:28).

그러다가 뭐가 이루어지면 교만해지고, 한계에 부딪히면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지는 것이다.

③ 그때 기껏 의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교와 우상이다. 가장 어리석은 착각이다(롬1:22-23).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다.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도록 착각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이 오신 것이다. 그 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그 분이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인간의 저주를 대신하시고(골1:13-14), 부활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요일3:8), 하나님 만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것이다(요14:6). 그것이 복음이다(눅2:10)

### 2. 아브라함이 누린 응답 25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하면 된다.

1) 언약 24이다. 이번 주의 본문이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이다.

① 우리가 가진 모든 상처, 한계, 영적 문제가 오는 현장이다. 이제는 거기에 잡혀 있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근원적 언약). 큰 민족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대표적 언약).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고 했다(불가항력적 언약).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시대적 언약)

② 이 언약을 놓칠 때 불안, 염려, 불신앙에 빠져 살고, 결국 내 기준, 내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인본주의)

어려움, 문제가 오는 것은 이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2) 말씀(강단) 24이다(행2:42, 살전2:13).

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다(평상시에, 갈등과 위기의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신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다(4절)

② 지금도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신다고 했다(딤후3:16).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고(시1:1-3),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천사를 움직이신다고 했다(시103:19-21)

3) 예배 24이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사람이다(7-8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은 것이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그 뜻을 찾고, 높이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예배 24이다(롬12:1-2)

### 3.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언약24, 말씀24, 예배24를 누리면서 할 일이다.

한마디로 하면 모든 문제와 사건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것(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1) 성도에게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시간표이다(카이로스의 시간)

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표가 있다(계8:3-4).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②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실패가 오는 것은 내 안의 숨은 영적 문제를 보고 치유 받으라는 시간표이다.

치유되지 않고 중요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없다. 중요한 자리에서 사단에게 당할 수는 없다(눅22:31-32, 행5:3)

③ 절망의 시간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25를 누리라는 것이다. 거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온다.

내가 끝났다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시간도 그 시간이다(히11:11)

2) 하나님의 것은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전도자들을 살피고, 도우시고, 표적을 주신다고 했다(막16:19-20)

마귀가 성도와 전도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역사하나 보좌를 이길 수는 없다(롬16:20, 계17:14, 계21:7)

3) 그 보좌의 축복의 결론은 237 모든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이다.

“너 때문에”, 나중에는 “네 씨로 말미암아”(창22:18)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나와 내 후손들이, 우리의 영적 가문인 교회가 다가오는 3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깊은 기도를 해보라.

**결론**-온 세상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바벨탑으로 가득찬 세상이다. 그 속에서 응답25의 주역들로 서기를 축복한다